

# 3대 사법개혁안에 국힘 필버 돌입...쟁점법 7박8일 대장정

### 국회 본회의...민주, 사법개혁·국민투표·통합특별법 등 처리 방침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안 오늘 표결...하루에 1개 법안씩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의원 총회 이후 국민의힘 과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함을 알리는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최대 7박 8일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법외국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의 처리도 조급씩 미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의 처리 예상안건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국힘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상법 일부개정안 등의 처리에 앞서 필리버스터에 돌

입했다.

통상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하루 1개 법안 처리를 가정했을 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오는 3월 2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 법안이 많아 자칫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에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주당이 법외국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법외국죄는 범행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 한 형법 개정안이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광역단체장 면접 마무리...다음주 예비경선 돌입

### 광주·전남 후보군 8명 경합...경남,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단독

6·3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전남 지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면접을 마치고 본선 고지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전남 실시된 광주시장에 이어 이날 전남지사 후보군까지 면접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관가와 정치권의 시선은 향후 경선 일정으로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을 비롯해 경기, 충남·북, 전북 등 주요 지역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이어갔다.

전남지사 면접에는 김영록 지사와 이개호·신정훈·주철현 국회의원 등 4명이 참석해 각자의 도정

철학과 본선 경쟁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면접 결과와 향후 경선 과정은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향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각각 선출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전남광주시' (가칭) 통합 후보로 합쳐져 단일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면접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전남 발전을 위한 책임자임을 자처했다. 김 지사는 재선 지사로서의 행정 연속성과 성과를 강조했다며, 이개호·신정훈·주철현 의원은 입법 경험과 지역구 활동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면접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순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면접은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지사 면접에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참석해 치열한 당내 경쟁 분위기를 보였다.

경남 지역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면접을 치렀다.

김 위원장은 면접 뒤 기자들에게 "지역 현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지금 다음 단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 생각을 (공천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광주시당, 통합 특별법 보안 촉구

### 시의회서 기자회견...“이양 청사진 결여...통합 반대는 아냐”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을 뒷받침할 핵심 권한이 빠진 현재의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기치를 들고 나섰다.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내실 있게 지방으로 옮겨오느냐에 있다"며 "구체적인 이양 청사진이 결여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를 비롯한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시당 측은 이번 입장 발표가 통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통합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몰아세우지 말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법안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3개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법안의 '졸속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사·도가 건의한 374개 특례 중 에너지 산업 등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핵심 사항들이 정부 협의 과정에서 잘려 나갔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강행 규정과 '보통교부세 25% 가산' 조항이 삭제된 점을 빼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규정 역시 '우선 이양'에서 '협의 후 가능'으로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지방의 권한이 정부의 재량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다.

시당은 본회의 최종 통과 전까지 제외된 핵심 특례 12건을 반드시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 단체의 의원 정수와 대표성 확보, 기초자치구의 자치권 보장, 농업 및 균형발전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보안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 시대를 맞는 만큼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김남준 전 靑대변인 “인천 계양을 출마 뜻”

### 정청래 민주당 대표 면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남준 전 청와대대변인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찾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1시간 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제 출마 의지를 밝혔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고 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계양을과 관련,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 재보선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당시) 계양을 의원으로 임기가 바로 시작했고, 제가 보좌관으로 동시에 들어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계양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 주민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계양을 출마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뒤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고맙다'고 화답을 해주셨다.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릴 만한 얘기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대변인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시작했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